유가족 껴안은 5509명 자원봉사자…연대와 나눔 큰 울림

청각장애인·그림책 작가·미국 시애틀 40대 부부 등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아픔 위로 잔잔한 감동

5509명의 자원봉사자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감당할 수 없는 슬픔에 빠진 유가족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 위로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손짓으로 소통하며 무료 차 나눔봉사를 하는 청각장애인 부부에서 손수건 600장에 편지를 적어 유가족에게 전달한 그림책 작가, 미국 시애틀에서 날아온 40대 부부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따뜻한 마음에 유가족들도 마음의 안정을 조금씩 찾을 수 있었다.

어이없는 대참사가 있을 때마다 국내외 곳곳에서 찾아온 자원봉사자들이 국가를 대신해 유가족들의 아픈 상처를 보듬어주었다.

지난 2022년 10월 29일 압사사고로 159명이 사망한 이태원 참사, 2014년 4월 16일 304명이 사망·실종된 세월호 참사 등에 수천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고, 일부는 특별법 제정 등 진상규명이 이뤄질 때까지 유가족의 곁을 지키며 몸과 마음을 다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에는 사고 2개월 만에 실종자 가족을 위한 자원봉사자 수가 3만5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서도 장애인에서 재미동포에 이르기까지 각양각색의 이력과 경력을 가진 이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해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고, 유가족의 편의를 지원해 참사로 무너졌던 우리 사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따뜻한 기운을 건넸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5일 현재까지 사고 현장 수습 지원, 유가족 지원, 교통 안내, '사랑의 밥차' 운영을 통한 식사와 물품 지원, 재난 심리 등 자원봉사 활동에 5509명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목포시에 거주하는 한 청각장애인 부부는 사고 당일부터 매일같이 커피·유자차·생강차 300인분을 준비해 무안공항 현장에서 무료 나눔봉사를 하고 있다. 이들은 메뉴판 옆에 '저희는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손짓으로 말씀해 주세요'라고 주문 요령을 적어 놓아 가슴이 뭉클해지게 하고 있다.

경기 수원에서 30년 동안 그림책으로 죽음에 대한 교육을 해온 임경희('그림책으로 배우는 삶과 죽음' 저자) 작가는 작가협회 '그·데·함(그림책+데스+함께돌보는 운동)' 회원들과 함께 손수건 600장에 편지를 적어 유가족에게 나눠주면서 아픈 사연을 나눴다. 임 작가는 "뉴스를 통해 제주항공 참사를 접하고, 공동체 일원이 TV를 보며 슬퍼하다 참사에 대한 기억이 잊히는 현실이 안타까워 봉사 현장을 찾았다"고 밝혔다.

미국 시애틀에서 20년 이상 거주한 40대 조 모 씨는 과거 미군 경력과 경비행기 교관으로서 경험을 떠올리며 안타까운 마음에 고국으로 날아와 지난 1일 아내와 함께 무안공항에서 후원물품 이송과 물품 배부, 환경정화 등 자원봉사 활동을 펼쳤다. 그는 자원봉사센터 측에서 연락처를 물었지만, 조용히 봉사하고 가고 싶다며 이를 정중히 사양했다.

제주 서귀포의 한 영농조합법인에선 감귤 156박스를 후원하고, 광명의 한 베이커리에선 냉동빵 79박스를 선뜻 보내왔으며, 서울시한의사회와 서울시청이 한의약품 1만2000명분을, 서울 광진구의 한 시민이 쌀빵과 블루베리잼 200개를 후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불의의 사고로 큰 슬픔에 빠진 유가족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힘든 시기를 견디게 해준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보면서 봉사활동이 단순한 선행을 넘어 사회의 중요한 가치임을 새삼 느꼈다"며 "유가족들의 상처가 깊고 큰 만큼, 도 차원에서도 향후 트라우마 상담 연계 등 세심하게 지원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원봉사자들이 지난 5일 무안국제공항 내 설치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쉘터 주변을 청소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12월 29일 사고 발생 즉시, 물품 후원이나 자원봉사 참여를 바라는 국민을 위해 도청 누리집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자원봉사 및 후원물품 문의처 안내' 팝업창을 게시, 자원봉사를 안내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전남도, 제주항공 참사 돌봄 정책 확대 나선다

시, 유족·친인척까지 통합돌봄 제공
도, 특별법 제정 긴급돌봄 6개월까지

광주시와 전남도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도움이 필요한 시·도민을 대상으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돌봄 정책 등을 확대한다.

6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시는 장례 절차 등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갑작스러운 돌봄이 필요할 때 '광주다움 통합돌봄' 서비스를 연계 지원한다.

광주시는 이번 참사가 가족 단위 희생이 많은 만큼 지원 대상을 유가족으로 한정하지 않고 친인척까지 확대하며, 여객기 참사에 따른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 평가나 조사 없이 즉시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제공한다.

시는 사회서비스원·식사지원기관 등과 연계해 청소·세탁·식사 준비, 근거리 이동 동행, 아동 돌봄 등 가사 지원과 조리된 식사 지원을 하고 있다.

시는 이번 참사가 국가적 대형 참사인 데다 희생자 다수가 광주시민인 점을 고려해 돌봄서비스 비용은 받지 않는다.

지난 5일 기준 이번 참사와 관련한 '광주다움 통합돌봄' 지원은 총 13가구(30여명)에서 제공받고 있으며, 희생자 가정에 어린이·노인 등이 있는 경우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가사 및 식사 지원을 하고 있다.

신청은 유가족 전담공무원에게 요청하거나 광주다움 통합돌봄 전용 전화번호 '돌봄콜(1660-2642)'로 연락하면 된다. 돌봄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광주시는 유가족 지원을 위해 과장급으로 1대 1 전담공무원을 지정, 유가족 곁에서 편의 제공 및 장례 지원 등도 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다움 통합돌봄 지원뿐만 아니라 희생자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장례 이후에도 세심한 부분까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제주항공 참사 후속 대책으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특별법은 사고 배상금, 위로 지원금, 손실 보상금 등 보상을 위한 근거를 담는 내용으로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구제받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전남도는 특별법에 심리 상담과 치료를 위한 트라우마 센터 설치, 추모 사업과 추모 공간 추진 지원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또 피해자와 가족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특별지원 방안도 담을 계획이다.

전남도는 특별법 추진과 함께 정부에 현재 1개월에 불과한 긴급돌봄서비스를 6개월까지 확대하고 유가족들의 병원·치료센터 이용 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교통비 지원, 최대 5년 간 1대 1 전담 심리상담 및 힐링프로그램 지원 등을 건의했다.

도민안전공제보험의 보험금 지급도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국가 차원의 위로지원금이 지급되는 방안을 특별법에 담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특별법 제정은 각 정당도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만큼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전남공동모금회, 참사 피해 지원 특별모금

광주·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모금을 실시한다.

6일 모금회에 따르면 오는 31일까지 광주·전남 지자체를 중심으로 특별 모금을 진행한다. 모아진 성금은 모금회 중앙회와 협의해 유족들의 심리지원과 학생 자녀들의 장학금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사랑의열매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고통을 겪는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며 "시민들의 지원이 가족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부를 원하는 시민들은 특별모금 계좌 광주은행 001-107-318309(광주모금회), 농협은행 617-01-162622(전남모금회)로 참여하면 된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北, 동해상에 극초음속 추정 탄도미사일

트럼프 취임 앞두고 올해 첫 발사

북한이 6일 극초음속 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올해 첫 탄도미사일 발사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2주 앞두고 도발을 감행하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이날 정오께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 미사일은 1100여㎞를 비행한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 이 미사일은 중거리급(사거리 3000~5500㎞) 엔진을 장착한 것으로 초기 평가됐지만, 실제 비행거리는 그에 못 미쳤다.

북한이 연료량 조절 등을 통해 거리를 줄였을 가능성, 저공 비행하는 극초음속 미사일 특성상 정확히 포착되지 않았을 가능성 등이 있다.

북한의 미사일은 지난해 1월과 4월에 발사한 고체연료 극초음속 미사일과 유사한 형태로 분석되며, 북한이 성능을 개량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극초음속 미사일이 맞는다면 비행거리 1100여㎞는 여태 포착된 북한 극초음속 미사일 중 가장 멀리 날아간 것이다. 중거리급 엔진의 성능을 최대한 발휘한다면 유사시 미군 증원 전력이 출동하는 미국령 괌까지 사정권에 들어온다.

괌 타격 능력을 보여주며 트럼프 측에 견제구를 던지면서도 사거리를 줄이는 방식으로 수위를 조절했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지난해 11월 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발사 이후 두 달만이다.

지난해 11월 6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승리한 이후 탄도미사일 발사에 나서지 않았던 북한이 오는 20일 예정인 트럼프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을 2주 앞두고 도발을 감행한 것이다.

합참은 "한미 정보당국은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다"며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발사 장소 인근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쓰일 것으로 추정되는 이동식 발사대(TEL)를 운용 중인 정황도 우리 군 당국에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이날 미사일 발사는 서울에서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진행되는 와중에 이뤄져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남측이 탄핵 정국으로 혼란스러운 와중에 탄도미사일을 쏜 것이기도 하다.

북한은 군 통수권이 윤석열 대통령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거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옮겨가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남측의 대응 태세를 확인하려 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합참은 "군은 현 안보 상황에서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6-중-166833호] [광고]

허리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허리 디스크 협착증

미세현미경 수술
척추 내시경 수술
고주파 수핵 감압술
척추 유합술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공공하수 · 공공폐수 · 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일)미만 /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컨설팅회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O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 · 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용역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 질소처리용 종균제 (Nitcell-O)
  하수/폐수처리용 종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 응결제, 고분자응집제, N,P영양제,
- 고효율 STS membrane 봉 산기관 (TMS-600+)
- 판형 산기관 (TMP-1000)
- 유기탄소원 : 니트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침강제 (Nexchy)
- 자동제어반, 교반기
- 부상조, 슬러지 건조기 등

대기환경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 VOC Treatment System
- Solvent Recovery System
- SCR De-NOx System
- Sulfur(H2S) Removal System
- Dust Collection System
- 기술상담 및 자문

• 1997 태림인더스트리㈜ 법인설립
• 2011 수출백만불탑, 수출유공자 수상
•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
• 201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모범중소기업인)
• 2019 환경부장관상 표창 (환경보전 공로)
•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 2022 고용노동부 강소기업 선정
• 2023 국세청 모범납세자 표창

본사, 공장) 58223 전남 나주시 남평읍 동촌로 19
Tel) 061-336-2588 Fax) 061-336-2587
아름다운 자연환경 창조! 태림인더스트리㈜
Homepage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